

#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음악성 향상을 위한 달크로즈 교수법의 활용 방안\*

유 승 지

## 목차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대상과 방법
3. 선행 연구 분석

### II. 본론

1. 달크로즈 교수법의 철학·이론적 배경
2. 달크로즈 교수법을 활용한 수업의 설계
3. 달크로즈 교수법을 활용한 수업 사례
4. 수업 참가자들의 반응을 통해 살펴본 달크로즈 수업의 의미

### II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 본 논문은 2011년도 한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고, 2011년 12월 17일에 열린 제5회 한국달크로즈학회 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논문으로 완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 논문접수일 (3월 20일), 수정일 (1차: 5월 14일, 2차: 5월 25일), 게재확정일 (5월 30일)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대부분의 음악전공자들은 대학교육을 통해 시창, 청음, 화성학, 건반화성, 음악분석 등 다양한 이론 수업을 접한다. 하지만 이론적 지식을 실기 연습 과정에 적용하면서 창의적으로 악보에 있는 상징들을 해석하는 연주자, 테크닉과 음악적 표현력을 조화롭게 갖춘 연주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미국의 저명 무용가이며 안무가인 마크 모리스(Mark Morris, 1956- )<sup>1)</sup>는 2004년 탱글우드 음악제(Tanglewood Music Festival)에서 “나는 음악학교의 교육에 대해 매우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음악을 죽이기 때문이지요. 음악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의 변화를 제대로 표현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음악가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지요”<sup>2)</sup>라고 말하며 우리 시대의 음악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음악교육에서 무엇이 간과되었기에 이렇게 기형적인 음악인들이 양성되는 걸까? 그렇다면 음악교육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스위스의 음악교육가 달크로즈(Emile Jaques-Dalcroze, 1865-1950)는 이미 한 세기 전에 제네바 콘서바토리(Geneva Conservatory)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위에서 열거한 문제점들을 발견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였다. 그는 청음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조차 음악적으로 풍부한 표현을 하면서 연주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sup>3)</sup> 이에 음악교육에 다양한 학문을 접목시켜 학생들의 음악성을 향상시키는 그만의 독창적인 교수법을 개발하였고, 그는 자신의 교수법을 “유리드믹스(eurhythmics)는 생리학, 심리학, 음악, 기하학, 무용, 교육학을 동시에 다루는 학문이다”<sup>4)</sup>라고 정의하였다.

1) 마크 모리스는 1980년에 ‘마크모리스댄스그룹’을 결성하여 많은 음악가들과 연주와 무용이 함께 하는 공연을 시도하였다. 그 중 첼리스트인 요요마(Yo-Yo Ma)와 공동 작업한 ‘*Falling Down Stairs*’는 에미상(E Emmy Award)을 수상하였다. 또한 마크모리스댄스그룹은 탱글우드 음악제에 무용단으로서는 최초로 초청받아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http://markmorrisdancegroup.org/resources/history> 참조(검색일: 2012년 5월 3일).

2) Johanna Keller, “Let’s Play the Music (and Dance),” *New York Times*, July 11, 2004.

3) Julia Schnebly-Black & Stephen F. Moore, *The Rhythm Inside: Connecting Body, Mind, and Spirit through Music* (Van Nuys, CA: Alfred Publishing, 2003), p. 6.

4) Emile Jaques-Dalcroze, *Eurhythmics, Art, and Education* (1930), trans. Frederick Rothwell (New York: Arno Press, 1976), p. 10.

2010년 유네스코와 한국 정부가 공동 주최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로버트 루트-번스타인(Robert Root-Bernstein)과 미셸 루트-번스타인(Michele Root-Bernstein)은 기초연설문을 통해 “전통적 전문가, 전통적 교육과정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해결사를 양성해야 합니다”<sup>5)</sup>라고 말하였는데 달크로즈는 이미 오래전에 음악교육에서의 ‘새로운 방식’을 고안한 개척자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음악대학의 교과목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들에서 연주자 양성을 위한 실기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탁상공론식 이론교육, 구태의연한 과거의 교과과정이 대부분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초·중등 교육에서는 음악, 무용, 미술, 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통합을 통한 교과 과정 개편 시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음악대학의 커리큘럼은 그러한 시대적 요구를 재빠르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전통적 교육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교과과정이 운영되다 보니 대학교육을 통해 탄탄한 음악성을 바탕으로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달크로즈 교수법을 통해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음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연주자’ 혹은 ‘음악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 2. 연구 대상과 방법

연구자는 2006년부터 6년에 걸쳐 H 대학교의 328명의 음악전공 학생들(피아노, 성악, 관현악, 작곡, 뮤지컬 전공)을 대상으로 그들의 음악성 향상을 목표로 한 달크로즈 수업<sup>6)</sup>을 실시하였다. ‘음악성’은 사전적으로 “음악에 대한 감상·이해·표현의 가능성을 종합한 것을 말한다”<sup>7)</sup>라고 정의 내려져 있는데, 이러한 사전적 정의를 바탕으로 설정된 수업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음악적 감수성: 예민한 청음 능력을 키움으로써 소리를 구별해서 듣고 느낄 수 있는 능력 키우기

5) Robert & Michele Root-Bernstein, “Arts at the Center,”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발표자료집』(문화체육관광부, 2010), 17쪽.

6)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I, II>라는 과목명으로 1, 2학기 전공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고 1회 수업은 1시간 40분 동안 이루어진다.

7) 세광음악출판사 사전편찬위원회, “음악성,” 『음악대사전』(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0), 1246쪽.

- 2) 음악 해석 능력: 악보에 나타난 상징 이면에 숨어있는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키우기
- 3) 음악 표현 능력: 음악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뉘앙스의 변화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신체 표현 능력 키우기
- 4) 음악 창작 능력: 음악을 상상하고 창의적으로 작곡할 수 있는 능력 키우기

수업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은 달크로즈 교수법의 3대 영역, 즉 유리드믹스, 솔페즈(solfege), 즉흥연주(improvisation) 중 유리드믹스와 즉흥연주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루어졌다. 달크로즈는 ‘도-도’ 음계<sup>8)</sup>에 기초하여 매우 색다른 솔페즈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두 학기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수업이다 보니 솔페즈 항목까지 심도 있게 다뤄질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기존의 교과 과정에서 시창·청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수업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솔페즈 관련 내용은 제외시켰다. 즉흥연주 수업의 내용도 전통적인 건반화성 수업이나 음악분석 수업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들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초창기에는 매 차시 수업에서 유리드믹스로 경험한 내용을 피아노 즉흥연주까지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하지만 수강생이 제한되어 있어 1학기 수업을 수강하고 2학기에는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유리드믹스와 즉흥연주를 보다 효과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각 학기 수업 목표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현재는 1·2학기 수업의 내용을 차별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에 1학기에는 유리드믹스를 통한 음악의 기초 개념 익히기가 주로 다루어지고, 2학기에는 피아노 즉흥연주 활동에 초점이 맞춰 수업이 이루어진다.

### 3. 선행 연구 분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dalcroze’로 검색 할 경우 국내학위논문 343편이 자료로 제시된다.<sup>9)</sup> 하지만 그 중 달크로즈 국제공인자격증<sup>10)</sup>을 소지한 연구자에 의해 쓰인 논문은 한 편도 없다.<sup>11)</sup> 또한 국내학술지논문은 81

8) 모든 조성을 가온 도에서부터 한 옥타브 위의 도'사이에서 부름으로써 조성감을 발달시키는 달크로즈의 독특한 솔페즈 교육 방법이다.

9) <http://www.riss.kr> 참조(검색일: 2012년 5월 1일).

10) 달크로즈 국제공인자격증은 디플로마(Diplome), 라이선스(License), 서티피케이트(Certificate)와 같이 세 가지 학위로 분류되고 각각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① 디플로마는 달

편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 7편만 달크로즈 국제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연구자에 의해 쓰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달크로즈 국제공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달크로즈 교수법의 원리를 잘 활용하여 연구자의 창의적인 생각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 윌리엄 웨스트니(William Westney),<sup>12)</sup> 알렉산드라 피어스(Alexandra Pierce)<sup>13)</sup> 등은 달크로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리드믹스의 원리를 그의 연구에 접목시켜 훌륭한 성과물들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발표된 달크로즈 관련 논문들을 살펴보면 달크로즈 교수법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유리드믹스, 솔페즈, 즉흥연주를 조화롭게 적용한 논문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최근 들어 그 연구 분야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유·초등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달크로즈학회 사이트의 참고문헌 섹션<sup>14)</sup>을 열람해 보면 달크로즈의 철학 및 생애, 달크로즈 교수법의 역사 등 달크로즈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들 외에 달크로즈 교수법을 여러 분야, 즉 예술가를 위한 교육, 음악교육, 음악치료, 음악이론, 심리학, 미학, 과학 등에서 활용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달크로즈 교수법의 적용 분야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다음에서 제시되는 상황이 아마 그 해답이 될 것이다.

첫째, 국내 달크로즈 교수법의 역사가 짧아 전문가가 많지 않다. 유네스코의 후원으로 2010년에 출판된 『달크로즈, 움직임으로 보는 음악』(*Emile Jaques-Dalcroze, Music in Movement*)에 의하면 달크로즈로부터 직접 디플로마 학위를 받은 사람은 약 120명 정도

---

크로즈 국제공인자격증을 수여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 된다. ② 라이선스는 달크로즈 교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 된다. ③ 서티피케이트는 어린이와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달크로즈 교수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 된다.

- 1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트에서 아직 검색되지는 않지만 최연선은 “달크로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 레슨에서의 불규칙 박자 지도방안 연구”를 2011학년도 한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하였다. 이는 달크로즈 국제공인자격증 소지자가 쓴 국내 최초의 달크로즈 교수법 관련 학위논문으로 여겨진다.
- 12) 윌리엄 웨스트니는 제네바 국제 콩쿨에서 우승한 콘서트 피아니스트이자 텍사스테크 대학의 교수이며, 달크로즈 교수법의 원리를 활용한 ‘Un-Master Class’를 개발하여 세계 각국의 주요 음악 대학에서 초청받아 강의를 하고 있다. 그는 *The Perfect Wrong Note: Learning to Trust Your Musical Self* (Pompton, N.J.: Amadeus Press, 2003)의 저자이기도 하다. <http://www.williamwestney.com> 참조(검색일: 2012년 5월 2일).
- 13) 알렉산드라 피어스는 캘리포니아의 레드랜드 대학의 명예교수이자 피아니스트, 작곡가, 음악교육가로 활동하고 있고, 자신의 저서인 *Deeping Musical Performance through Movement: The Theory and Practice of Embodied Interpretation*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7)을 통해 “음악가들은 몸의 움직임을 통해 음악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발전시킨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 14) <http://www.dalcrozeusa.org/resources/resource-library> 참조(검색일: 2012년 5월 3일).

이며, 이들은 세계로 흩어져 콘서바토리, 대학, 전문 달크로즈 교육 기관을 통해 달크로즈 교수법을 전파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총 33개국에서 달크로즈 전문가들에 의해 그의 교수법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웃 나라 일본은 1934년에 달크로즈 교수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15)</sup> 그에 반해 한국의 경우 1999년에 처음으로 달크로즈 국제공인자격증(certificate) 소지자가 배출되었으니 다른 나라에 비해 달크로즈 교수법의 역사가 매우 짧고 전문가가 많지 않은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여겨진다.

둘째, 전문적인 달크로즈 교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달크로즈가 피아노 즉흥연주자, 작곡가, 지휘자, 음악교육가의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무용, 연극, 음악치료 등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교수법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훌륭한 달크로즈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능력을 적절히 갖추는 학습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자질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자질을 갖춘 달크로즈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척 긴 시간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국제공인자격증 가운데 서티피케이트를 취득하는데 3년, 서티피케이트 취득 후 라이선스를 취득하는데 3년 정도가 최소한 소요된다. 그리고 디플로마 학위는 라이선스 취득 후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창의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야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계적으로 디플로마 학위를 가진 달크로즈 교육자는 그리 많지 않다. 한국에서는 초창기에 어린이 교육에 달크로즈 교수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자질을 인정받은 써티피케이트 소지자들에 의해 교육이 전파되었고, 그러한 영향을 받아 달크로즈 교수법이 마치 어린이를 위한 교육에만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게 된 것 같다. 하지만 도입 후 10년을 훌쩍 넘긴 현재 달크로즈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라이선스 소지자가 4명, 서티피케이트 소지자 16명이 탄생했고, 외국 교수들의 초청 교육 등으로 교사교육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는 외국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전공을 살려 활동하는 달크로즈 전문가들이 많이 육성되리라 기대된다.

셋째, 달크로즈 전문가들이 수업의 실재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저술을 많이 하지 않아 문헌을 통해 다양한 수업 적용 방법을 익히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달크로즈 전문가들이 교사 지침서 유형의 책을 많이 저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유승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15) Institut Jaques-Dalcroze, *Emile Jaques-Dalcroze, Music in Movement* (Genève: Institut Jaques-Dalcroze, 2010), p. 21.

달크로즈 석학들은 달크로즈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유리드믹스, 솔페즈, 즉흥연주 자질을 충분히 갖추면 어떤 연령, 대상에게도 달크로즈 교수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였고 수업 플랜을 책으로 저술하는 것 보다 훌륭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영국의 캠벨(Laura Campbell)은 “달크로즈는 3년 과정을 모두 이수했던 학생이라도 그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합격시키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달크로즈가 그가 만든 교수법의 본질을 이해하는 교사 양성에 얼마나 몰두하였는지 회상한다.<sup>16)</sup>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외적으로 성인을 위한 달크로즈 수업의 구체적인 수업 사례를 볼 수 있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최근 들어 후속세대를 위하여 달크로즈 석학들의 수업을 기록 자료로 남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세계달크로즈학회(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Enseignants de Rythmique, F. I. E. R.)를 중심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출판된 책이 『유리드믹스로의 접근』(*Paths to Rhythmics*)인데 이 책에는 14명의 달크로즈 석학들이 제시하는 유리드믹스, 솔페즈, 즉흥연주 수업 플랜이 제시되어 있다. 그 외 아브람슨(Robert M. Abramson, 1928-2008),<sup>17)</sup> 슈타이니츠(Toni Steinitz),<sup>18)</sup> 알퍼슨(Ruth Alperson),<sup>19)</sup> 블랙(Julia Schnebly-Black)과 무어(Stephen F. Moore)<sup>20)</sup>의 연구는 성인을 위한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수업의 기본 구조를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예들을 제시한다.<sup>21)</sup> 하지만 이 모든 연구들이 유리드믹스 영역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성인을 위한 달크로즈 즉흥연주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달크로즈는 그의 저서 『리듬, 음악, 그리고 교육』(*Rhythm, Music, and Education*)에서 달크로즈 교사가 되기 위해 습득해야 하는 즉흥연주 기술 22가지<sup>22)</sup>를 제시하였는데,

- 
- 16) 유승지, “카네기멜론대학의 달크로즈 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제언,” 『한국달크로즈논집』 1 (2010), 22-23쪽.
- 17) 아브람슨이 저술한 *Rhythm Games for Perception and Cognition* (Pittsburgh, PA: Volkwein Bros, 1973)과 *Feel It!* (Miami, FL: Warner Bros. Publications, 1998)은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유리드믹스 게임들을 수록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달크로즈 유리드믹스에 기초한 리듬 게임 I, II』 (서울: 태림출판사, 1999, 2001)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 18) Toni Steinitz, *Teaching Music in Rhythmics Lessons* (Tel-Aviv: OR-TAV Music Publications, 1988).
- 19) Ruth Alperson, “A Qualitative Study of Dalcroze Eurhythmics Classes for Adults,” (Ph.D. Diss., New York University, 1995).
- 20) Julia Schnebly-Black & Stephen F. Moore, *The Rhythm Inside: Connecting Body, Mind, and Spirit through Music* (Van Nuys, CA: Alfred Publishing, 2003).
- 21) 국내에서는 안재숙이 2005년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으로 “달크로즈 유리드믹스가 음악 대학생의 음악적 이해력과 표현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리드믹스 수업에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였다.

에핑(Anna Epping), 샤투이(Marianne Cheridjian-Charrey), 레이첼(Bernard Reichel), 포르트(Dominique Porte) 등의 저술이 달크로즈의 즉흥연주 교육 방법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연구로 손꼽힌다.<sup>23)</sup> 그 외 블랙과 무어가 공동집필한 『개인 레슨에서 달크로즈 교수법 적용하기』(*Rhythm: One on One, Dalcroze Activities in the Private Music Lesson*),<sup>24)</sup> 아브람슨과 라이저(Joseph Reiser)가 공동 집필한 『달크로즈 핸드 댄스』(*Dalcroze Hand Dances*)<sup>25)</sup>는 개인레슨에서 유리드믹스와 즉흥연주의 아이디어를 합쳐서 가르치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제시한다. 한편, 2011년 즉흥연주를 특집 주제로 발행된 『리듬: 음악적 즉흥연주』(*Le Rythme: Musical Improvisation*)에는 달크로즈 전문가들의 즉흥연주 수업의 사례들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연구들이 즉흥연주 수업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음악성 향상을 위하여 유리드믹스와 즉흥연주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두 학기 동안 학교 수업에서 진행된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 II. 본론

### 1. 달크로즈 교수법의 철학·이론적 배경

#### (1) 달크로즈 수업에서 왜 움직이는가?

달크로즈는 학생들이 음악적인 연주를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몸’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였다.

첫째, 뇌로부터 움직임의 실행하는데 필요한 근육에 명령을 빠르게 전달할 수 없는 것.

22) Emile Jaques-Dalcroze, *Eurhythmics, Art, and Education*, p. 76-79 참조.

23) Irwin Spector, *Rhythm & Life: The Work of Emile Jaques-Dalcroze* (New York: Pendragon Press, 1990), 문연경 외 역, 『삶과 리듬(상): 에밀 자크 달크로즈가 걸어온 길』 (서울: 리더스하이, 2007), 216-17쪽.

24) Julia Schnebly-Black & Stephen F. Moore, *Rhythm: One on One, Dalcroze Activities in the Private Music lesson* (Van Nuys, CA: Alfred Publishing, 2004).

25) Robert M. Abramson & Joseph Reiser, *Dalcroze Hand Dances* (New York: Music and Movement Press, 2000).



둘째, 이러한 명령을 신경체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것.  
셋째, 뇌에서 신경체계를 거쳐 근육으로 전달된 명령을 정확하게 움직임으로 재현하지 못하는 것.<sup>26)</sup>

그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육운동지각능력(kinesthetic sense)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음악게임들을<sup>27)</sup> 고안하였고, 학생들은 이러한 음악게임들을 통해 ‘긴장과 이완’, ‘협동과 분리’, ‘자극과 억제’를 경험함으로써 정확하고 표현력 있는 연주가 가능한 ‘몸’을 만들게 될 것이라 하였다. 달크로즈 수업에서는 왈츠나 미뉴에트처럼 정해진 동작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서의 시간-공간-에너지의 변화를 움직임에 반영한 다양한 이동 동작, 비 이동 동작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지휘하기, 걷기, 손뼉 치기는 학생들의 근육운동지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리드믹스 수업 시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동작들이다. 또한 이러한 동작을 사용해서 움직일 때에도 신체의 특정 부위만을 사용하는 동작 보다는 ‘지휘하면서 리듬을 걷기로 표현하기’, ‘규칙적 박을 걷기로 표현하고 리듬을 손뼉으로 표현하기’, ‘리듬을 걷기로 표현하고 규칙적 박을 손뼉으로 표현하기’ 등의 형태로 몸 전체를 사용해서 두 개의 상이한 동작을 동시에 진행하는 활동들이 주로 사용된다.<sup>28)</sup> 파커(Lisa Parker)는 “몸 전체를 사용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학생들은 외국어를 배울 때 새로운 단어를 배운 것과 같은 효과를 경험합니다. 보다 더 풍부한 움직임의 어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움직임을 통해 학생들은 ‘좋아!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내 몸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sup>29)</sup>라고 말하면서 수업 시간에 온 몸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이유를 설명한다.

기본적으로 지휘하기는 박의 변화에 따른 몸의 ‘긴장과 이완’을 경험하는데 매우 효

26) Marie-Laure Bachmann, *Dalcroze Today: An Education through and into Music*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83.

27) 아브람슨은 “달크로즈수업에서 활용되는 게임은 일반적으로 5가지로 요약되며 따라하기(follow), 빠르게 반응하기(quick reaction), 메아리 모방(interrupted canon), 중복 모방(continuous canon), 대체하기(replacement game)로 나누어지고, 이러한 게임을 통해 학생들은 음악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창의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근육운동지각능력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Lois Choksy, Robert M. Abramson, Avon E. Gillespie, David Woods, & Frank York, *Teaching Music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6), p. 47 참조.

28) 리듬의 변화에 따라 에너지의 강도가 달라지고 공간사용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변화는 제자리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사용할 때 보다 걷기와 같은 이동 동작을 할 때 더욱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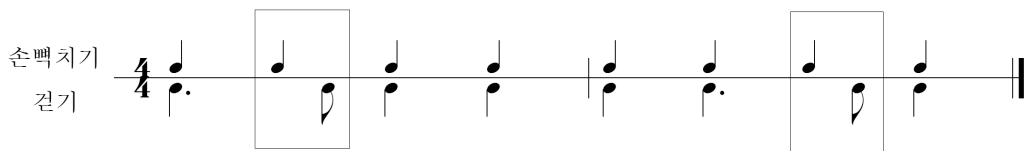
29) Julia Schnebly-Black & Stephen F. Moore, *The Rhythm Inside: Connecting Body, Mind, and Spirit through Music*, p. 15.

과적이다. <악보 1>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점사분음표가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음악의 뉘앙스는 매우 달라진다. 따라서 지휘하면서 구음(scat)으로 리듬을 표현하는 활동은 음악의 뉘앙스의 변화를 움직임과 목소리로 동시에 경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고 리듬을 기계적으로 표현하는 학생들의 나쁜 습관을 교정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

<악보 1> 지휘하면서 리듬의 변화에 따른 ‘긴장과 이완’ 경험하기



<악보 2> 손뼉 치기와 걷기를 통해 ‘협동과 분리’ 경험하기



한편 지휘를 하면서 리듬을 걷기로 표현하는 동작, 혹은 손뼉 치기와 걷기를 동시에 하는 동작을 통해 학생들은 ‘협동과 분리’를 경험하게 된다. <악보 2>에서 제시된 리듬을 지휘하기와 걷기(혹은 손뼉 치기와 걷기)로 표현 할 경우 ‘□’ 처리된 곳은 손과 발이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게 되므로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한다. 하지만 이렇게 손과 발이 분리되는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분석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몸을 조정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아래의 <악보 3>은 ‘자극과 억제’를 경험할 수 있는 ‘빠르게 반응하기 게임’을 위한 예제 곡을 소개한 것이다. 『스와니 강』<sup>30)</sup>의 리듬을 손뼉 치기로 표현하다가 교사의 ‘hip’ 신호에 반응해서 걷기로 리듬을 표현하는 활동인데, 손뼉 치기와 걷기의 역할이 교체되는 순간 학생들은 ‘자극과 억제’를 경험하

30)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수업에서 학생들의 리듬 감각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할 때 어린 시절 즐겨 부르던 동요를 제재 곡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연주 실력이 상당히 뛰어난 학생들도 달크로즈 게임의 원리를 적용해서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이 생각만큼 쉽지 않음을 토로하는데, 복잡한 제재 곡을 제시할 경우 학생들은 자신의 몸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것을 아예 포기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음악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너무 어려운 과제 곡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주제를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음악적인 악곡을 제재 곡으로 제시하는 것이 학생들의 음악성을 향상시키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게 되고 순간적으로 정확한 반응을 하기 위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따라서 ‘긴장과 이완’, ‘협동과 분리’, ‘자극과 억제’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게임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근육의 움직임에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정확하고 표현력 있는 연주를 할 수 있는 ‘몸’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악보 3> 빠르게 반응하기 게임을 통해 ‘자극과 억제’ 경험하기



## (2) 달크로즈 수업에서 교사의 즉흥연주는 왜 중요한가?

달크로즈는 이상적인 교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가르치는 것(교육)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어 그 역량을 극대화시켜 재능으로 발전시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자유로운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이 발산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어야 한다. 교사는 강의와 교육의 차이를 이해해야 하는데, 강의를 지식 전달하는 수동적인 활동이라면 교육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끌어내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끄는 적극적 활동이다.<sup>31)</sup>

달크로즈 수업에서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내재된 능력을 발산하고 촉진하는 것을 도와주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달크로즈 교사의 즉흥연주는 학생들이 음악과 소통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수업에 임하게 될 때 학생들은 음악에 보다 집중하게 되며 교사가 준비한 다양한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달크로즈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좋은 ‘청음 능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움직임을 할 때 소리에 흥미롭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음악적인 즉흥연주를 해주는 것은 달크로즈 수업의 성패를 판가름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알퍼슨은 달크로즈 교사가 즉흥연주 할 때 “나는

31) Emile Jaques-Dalcroze, *Eurhythmics, Art, and Education*, p. 10.

너희들을 보고 있어. 그리고 너의 특별한 움직임들을 잘 관찰하고 있단다. 너의 움직임이 가지고 있는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 에너지, 그리고 너의 움직임의 특별한 캐릭터,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나는 너의 움직임을 음악으로 너에게 보여주기를 원해”<sup>32)</sup>라는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다양한 음계와 화성을 사용해서 움직임에 적합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즉흥연주 능력을 가진 교사는 학생들이 음악과 소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게 된다. 아무리 수업 지도안이 훌륭해도 교사의 즉흥연주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수업은 진정한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수업이라 할 수 없으며 교사가 준비한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헨케(Herbert Henke)는 “아름다운 정원처럼 유리드믹스 수업은 아름다운 소리들로 가득 차야만 한다. 교사는 아름다운 프레이즈 처리, 강약, 표현력, 그 외 음악성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활용하여 음악적 감수성을 드러내야 한다”<sup>33)</sup>라고 말하면서 교사의 음악적인 즉흥연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연구자는 200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 34회 세계달크로즈학술대회에 참가하였을 때 스위스 달크로즈 인스티튜트(Institut Jaques-Dalcroze)의 교수로 재직 중인 지아나다(Ruth Gianadda)의 노인을 위한 수업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다. 그 이전에도 달크로즈 교사들의 즉흥연주에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 노인들이 좋아하는 상송 선율을 기초로 한 즉흥연주를 들려주며 노인들이 즐겁게 임할 수 있는 단순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는 지아나다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가르칠 학생의 연령과 선호하는 음악을 고려해서 수업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즉흥연주 능력을 가진 교사만이 진정한 달크로즈 교사라 할 수 있고, 이러한 교사에 의해 진행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유리드믹스 수업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 (3) 달크로즈 수업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달크로즈 수업에서 이론적 상징은 항상 충분한 움직임을 경험하게 한 후 제시된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론적 지식을 머리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반복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수업의 주제는 다양한 음악게임과 교사의 즉흥연주를 토대로 점차적으로 심화된 활동으로 전개된다. 동일한 내용을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암기하게 하는 것은 달크로즈 수업에서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 달크로즈는 지루하게 반

32) Ruth Alperson, “The Essence of Eurhythmics,” *Le Rythme* (2007), p. 11.

33) F. I. E. R., *Paths to Rhythmics: 41 lessons, 14 teachers* (Genève: Editions Papillon, 2007), p. 46.

복하는 과정을 통해 암기하게 되는 학습 과정을 적대시켰고, 그 대신 창의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론적 지식을 습득한 통찰력을 지닌 음악가를 키우기를 원했다. 다음에서 제시된 인용문은 그의 이러한 생각을 잘 엿볼 수 있다.

아이들이 말하는 첫 번째 단어는 ‘아빠’, ‘엄마’이다. …(중략)… 아주 어린 아이가 ‘자치제’(municipality)와 같은 단어를 발음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다. ‘당김음’과 ‘앞꾸밈음’과 같은 용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친숙하기 전에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많은 경우 음악이론은 음악 그 자체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악보에 그려진 상징들을 연구하는 것으로 그칠 때가 많다. 음악이론 그 자체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 되기보다 과정을 통한 결과로서 음악이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sup>34)</sup>

일반적으로 유리드믹스 수업에서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이 펼쳐진다. 하지만 하나의 악곡에는 다양한 음악적 주제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핵심 주제 외에도 다른 음악적 주제들이 부수적으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교사는 나선형 교육과정<sup>35)</sup>의 원리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이전에 학습한 음악 개념들을 새로운 개념을 학습함으로써 심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수업을 계획할 때 학생들의 선행학습에 대한 이해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새로운 주제학습을 통해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수업 안을 전략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주제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음악의 선곡도 매우 중요하다. 교사의 즉흥연주가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만 기존 악곡 중에서 주제가 잘 드러난 작품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학생의 측면에서 본다면 교사가 제시하는 예제 곡들은 기존의 악곡에서 그 주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관찰 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예제 곡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야 수업을 전개하는 것이 쉬워진다. 또한 다른 작곡가의 작품을 모방하고 발전시키면서 즉흥연주 역량도 발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좋은 달크로즈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클래식, 가요, 동요, 재즈 등의

34) Emile Jaques-Dalcroze, *Eurhythmics, Art, and Education*, p. 121.

35) 나선형 교육과정은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과정의 조직 형태이다. 지식의 구조와 관련된 한 가지 중요한 가정(假定)은 “어떤 지식이든지 그 성격에 충실한 형태로 어떤 발달단계에 있는 어떤 아동에게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정에 의하면 교육내용으로서의 ‘지식의 구조’는 교육의 수준에 관계없이 그 성격에 있어서 동일하며, 이 동일한 성격의 내용이 학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 폭넓게, 또 깊이 있게 가르쳐져야 한다. 이와 같이 조직된 교육과정이 마치 달팽이 껍질 모양과 같다고 하여 나선형(螺旋形) 교육과정이라고 부른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0286> 참조(검색일: 2012년 5월 5일).

다양한 음악 장르 중에서 각 주제가 음악적으로 잘 표현된 작품들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주제와 예제 곡이 확정되면 난이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단계적으로 수업을 계획해 나가는 교사의 능력이 요구된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교사가 페이스(pace)조절에 실패하면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전의 활동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면서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게임 유형, 활동 유형(개인 활동, 짝 활동, 그룹 활동), 활동 대형(이동 동작, 비 이동 동작), 소도구, 다양한 악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수업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치밀한 준비를 통해 “나는 유리드믹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나는 알아요’(I know)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경험했어요’(I Experienced)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sup>36)</sup>는 달크로즈가 원하는 진정한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를 한 후 수업에 임하더라도 실제로 교사가 계획한 내용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교사는 준비한 내용을 고집스럽게 강행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과감하게 수업 계획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해진 진도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의미 있는 발견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달크로즈 수업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고, 학생 자신의 결점을 스스로 적절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보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후에 소개될 내용은 달크로즈 교수법을 활용한 구체적인 수업 설계 내용으로, 2006년부터 총 12학기동안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과 매 학기 수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강의 평가서와 인터뷰 내용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수정 작업을 통해 구성된 것이다.

## 2. 달크로즈 교수법을 활용한 수업의 설계

### (1) 1학기 수업의 구성

1학기에는 악곡 해석의 기초가 되는 음악 개념들, 즉 박, 리듬, 박자, 강약, 아티큘레

36) Emile Jaques-Dalcroze, *Rhythm, Music, and Education* (1921), trans. Harold F. Rubenstein (London: The Dalcroze Society, 1967), p. 63.

이션, 템포, 프레이즈 등을 유리드믹스 활동을 통해 경험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수업이 진행되었다. 10년 넘게 달크로즈 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면서 상위 레벨의 학교 출신부터 아마추어까지 다양한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음악적 배경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음악 개념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서 음악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였다. 따라서 이미 학생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음악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경험하는 작업이 음악교육에서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표 1>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데일(Monica Dale)은 “유리드믹스, 솔페즈, 즉흥연주의 3대 영역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고 철학적으로 같은 뿌리를 가지고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음악적 주제는 3대 영역이 골고루 적용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수업에서도 이 3대 영역이 통합적으로 적용된다”<sup>37)</sup>라고 하였다. 이러한 교수법의 특징 때문에 유리드믹스 활동이 수업의 근간을 이루지만 필요에 따라 수업에서 사용된 주제들을 솔페즈나 즉흥연주로 경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때 즉흥연주는 목소리, 타악기, 움직임에 이용한 즉흥연주에 머물고, 피아노를 이용한 즉흥연주는 2학기 수업에서 다루어 질 것이므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히 9차시 이후부터는 특정 음악 작품을 분석하여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코레오그래피’(choreography)<sup>38)</sup> 작업이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표 1> 1학기 15차시 수업의 주제 및 주요 활동

주차	수업의 주제	주요 활동
1차시	달크로즈 교수법 개요 I	- 달크로즈의 생애 및 교수 철학 고찰
2차시	달크로즈 교수법 개요 II	- 달크로즈 교수법의 3대 영역에 대한 이해 - 달크로즈 음악게임의 주요 원리에 기초한 활동 경험하기
3차시	박 (Beat)	- 시간, 공간, 에너지의 상관관계 이해하기 - 규칙적인 박 경험하기 - 박(crusis/metacrusis/anacrusis) <sup>39)</sup> 의 성질 구별하기

37) Monica Dale, *Eurhythmics for Young Children: Six Lessons for Fall* (Ellicott City, MD: MusiKinesis, 2000), p. vii.

38) ‘유리드믹스’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음악을 듣고 순간적으로 반응해서 몸으로 그 음악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코레오그래피’ 작업은 “음악을 분석한 후 작곡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요소들을 움직임으로 표현한 것을 작품으로 정형화시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음악을 통해 느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승지, “달크로즈 페스티벌 분석을 통한 어린이 공연 발전 모색,” 73-75쪽 참조.

주차	수업의 주제	주요 활동
4차시	리듬 (Binary Rhythmic Un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듬의 변화에 따른 움직임의 차이 이해하기</li> <li>- 다양한 2분할 리듬 경험하기</li> <li>- 정확하고 음악적인 리듬 표현 능력 키우기</li> <li>- 2분할 리듬 창작하기</li> </ul>
5차시	리듬 (Ternary Rhythmic Un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듬에 따른 움직임의 차이 이해하기</li> <li>- 다양한 3분할 리듬 경험하기</li> <li>- 정확하고 음악적인 리듬 표현 능력 키우기</li> <li>- 3분할 리듬 창작하기</li> </ul>
6차시	보충 리듬 <sup>40)</sup> (Complementary Rhyth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충 리듬 이해하기</li> <li>- 움직임을 통해 보충 리듬 경험하기</li> <li>- 리듬 패턴 창작 후 목소리, 움직임, 혹은 타악기를 이용해 보충 리듬 표현하기</li> </ul>
7차시	확대와 축소 <sup>41)</sup> (Augmentation & Diminu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듬 패턴의 확대와 축소 이해하기</li> <li>- 리듬 패턴의 확대된 형태 혹은 축소된 형태를 규칙적인 박의 흐름 안에서 표현하기</li> <li>- 창작 리듬 패턴을 이용해서 확대와 축소 경험하기</li> </ul>
8차시	중간고사	
9차시	코레오그래피 (Choreograph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레오그래피 작업의 중요성 이해하기</li> <li>- 영상을 통해 다양한 코레오그래피 작품 감상</li> <li>- 코레오그래피 작업할 악곡의 음악적 내용(리듬, 선율, 강약, 프레이즈, 아티큘레이션, 박자 등) 분석하기</li> </ul>
10차시	강약 (Dynam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썸머림의 변화에 따른 움직임의 차이 이해하기</li> <li>- 썸머림의 변화를 구별해서 듣고 음악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하기</li> <li>- 다양한 썸머림(크고 작은 소리/점차적인 썸머림의 변화/갑작스러운 썸머림의 변화) 창조하기</li> </ul>
11차시	아티큘레이션 (Articu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반(Rudolf von Laban, 1879-1958)의 철학 이해하기</li> <li>- 아티큘레이션의 변화에 따른 움직임의 차이 이해하기</li> <li>- 아티큘레이션의 변화를 구별해서 듣고 음악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하기</li> <li>- 라반의 8가지 기본 동작<sup>42)</sup>을 기초로 다양한 아티큘레이션이 포함된 움직임, 음악 창조하기</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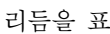


주차	수업의 주제	주요 활동
12차시	템포 (Tempo)	- 템포의 변화에 따른 움직임의 차이 이해하기 - 템포의 변화를 구별해서 듣고 음악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 템포의 변화를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13차시	프레이즈 (Phrase)	- 악곡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프레이즈의 형태 이해하기 - 프레이즈의 시작과 종지를 구별해서 듣고 음악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 아나크루식 프레이즈(anacrusis phrase)와 크루식 프레이즈(crusic phrase)의 차이 느끼고 표현하기 - 다양한 프레이즈의 형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14차시	박자 (Meter)	- 악곡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박자의 형태(홀박자/겹박자/불규칙 박자/변박자) 이해하기 - 박자의 변화를 구별해서 듣고 음악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 다양한 박자의 형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15차시	코레오그래피 작품 발표	

## (2) 2학기 수업의 구성

2학기는 피아노 즉흥연주를 중심으로 수업을 계획하였다. 수강자들이 피아노, 작곡, 성악, 관현악 등 다양한 전공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는 학생도

39) 크루시스(crusic)는 강박(downbeat)을 의미하고, 메타크루시스(metacrusis)는 강박의 반동으로 생성되는 박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아나크루시스(anacrusis)는 강박 전에 제시된 약박(upbeat)을 의미한다.

40) 보충 리듬의 경우 리듬이 연주될 때 소리가 나지 않는 공간을 채워 넣음으로써 리듬감을 향상시키는 훈련 방법이다. 예를 들어 와 같은 리듬을 걷기로 표현하는 동안 손뼉치기로는 의 리듬을 표현하는 식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

41) 리듬이 아래 <악보 4>와 같이 제시된 후 축소를 표현하게 되면 <악보 5>의 형태가 되고, 확대를 표현하면 <악보 6>의 형태가 된다. 변화된 리듬을 규칙적인 박이 흐르는 가운데 정확하게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박을 조절하는 능력, 리듬감 등이 향상된다.

<악보 4> 

<악보 5> 

<악보 6> 

42) 헝가리의 무용가 라반은 공간, 힘, 시간의 다른 배합에 의해 만들어지는 신체활동을 에포트(effort)라고 정의하고 이것을 float, punch, glide, slash, dab, wring, flick, press로 구분하였다.

[http://en.wikipedia.org/wiki/Laban\\_Movement\\_Analysis](http://en.wikipedia.org/wiki/Laban_Movement_Analysis) 참조(검색일: 2012년 5월 6일).

즉흥연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고안하였고, 그들의 창의적 발상을 끌어내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수업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음악’과 ‘움직임’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움직임’을 정확하게 ‘음악’으로 표현하고 ‘음악’을 통해 ‘움직임’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학생들이 본인의 악기를 연주할 때 음악에 내재된 움직임을 상상하면서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장·단조 음계에 비해 즉흥연주로의 접근이 용이한 ‘오음 음계, 온음계, 반음계, 선법, 12음 기법을 활용한 즉흥연주’<sup>43)</sup>가 수업에서 다루어졌다.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각 음계를 활용한 즉흥연주의 기초를 다지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7차시까지 배웠던 음계들을 사용한 ‘음악동화 창작’과 ‘음계변주곡 창작’을 실시하였다.

<표 2> 2학기 15차시 수업의 주제 및 주요 활동

주차	수업의 주제	주요 활동
1차시	수업의 개요	- 달크로즈 교수법에서 즉흥연주의 의미 - 달크로즈 즉흥연주의 특징 이해하기
2차시	오음 음계 즉흥연주	- 오음 음계에 기초한 악곡 소개 - 오음 음계를 활용한 즉흥연주 실습 - 창작된 작품을 움직임, 이야기 혹은 그림으로 표현
3차시	온음계 즉흥연주	- 온음계에 기초한 악곡 소개 - 온음계를 활용한 즉흥연주 실습 - 창작된 작품을 움직임, 이야기 혹은 그림으로 표현
4차시	반음계 즉흥연주	- 반음계에 기초한 악곡 소개 - 반음계를 활용한 즉흥연주 실습 - 창작된 작품을 움직임, 이야기 혹은 그림으로 표현
5차시	12음 즉흥연주	- 12음 기법에 기초한 악곡 소개 - 12음 기법을 활용한 즉흥연주 실습 - 창작된 작품을 움직임, 이야기 혹은 그림으로 표현
6차시	선법 즉흥연주 I, II	- 선법에 기초한 악곡 소개
7차시		- 선법을 활용한 즉흥연주 실습
8차시	중간고사	

43) 유승지, “초급 피아노 교재에 사용된 장·단조 체계 이외의 악곡 분석과 활용 방안,” 『음악과 문화』 23 (2010)에 이와 관련한 내용의 연구가 수록되어 있다.

주차	수업의 주제	주요 활동
9차시	음악동화 만들기 I	- 음악동화 작업의 의미 이해하기 - 영상을 통해 다양한 음악동화 작품 감상 - 음악동화 만들기에 적합한 동화책 소개 - 음악동화에 사용될 이야기 창작 방법 지도
10차시	음악동화 만들기 II	- 창작한 이야기 발표 후 피드백 - 이야기에 어울리는 음악 창작 방법 지도
11차시	음악동화 만들기 III, IV	- 음악동화 발표 후 창작된 음악에 대한 피드백
12차시		- 나레이션 방법, 음악적인 연주 방법 지도
13차시	음계변주곡 창작 I, II	- 오음 음계, 온음계, 반음계, 선법을 활용한 동요 변주곡 창작 후 피드백
14차시		- 각각의 변주곡에 어울리는 제목 창작 방법 지도
15차시		본인이 창작한 작품 발표

### 3. 달크로즈 교수법을 활용한 수업 사례

#### (1) 유리드믹스 수업 사례

제한된 지면 관계상 유리드믹스 수업 지도안 중 프레이즈를 주제로 한 수업을 예시로 제시하고자 한다. <표 3>의 수업목표를 살펴보면 프레이즈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나열되어 있다. 한 학기라는 제한된 시간에 학생들의 음악적 기초를 쌓아주기 위해 매 시간 특정 주제에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집약적으로 다루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달크로즈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보다 전문적인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이러한 주제들을 더 세분화해서, 즉 프레이즈의 시작과 종지 경험하기, 아나크루식 프레이즈 경험하기, 크루식 프레이즈 경험하기 등과 같이 제시된 수업목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다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제시된 수업은 학생의 수준과 수업 시간에 따라 2-3회로 나누어 시행될 수 있다.

## ① 유리드믹스 수업 지도안의 예

&lt;표 3&gt; 유리드믹스 수업 지도안의 예

수업주제	프레이즈		
수업목표	1) 악곡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프레이즈의 형태 이해하기 2) 프레이즈의 시작과 종지를 구별해서 듣고 음악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3) 아나크루식 프레이즈(anacrusic phrase)와 크루식 프레이즈(crusic phrase)의 차이 느끼고 표현하기 4) 다양한 프레이즈 창작하기		
준비물	공, 스카프, 핸드드럼		
사용 가능한 제재 곡(4)	1) 크루식 프레이즈를 학습하기에 좋은 제재 곡: 포스터(Foster)의 「스와니 강」, 엘가(Elgar)의 「위풍당당 행진곡」, 고썸(Gossec)의 「가보트」 2) 아나크루식 프레이즈를 학습하기에 좋은 제재 곡: 스콧(Scott)의 「애니로리」, 스메타나(Smetana)의 「몰다우」, 쇼팽(Chopin)의 「프렐류드」 Op. 28. No. 7 3) 다양한 길이의 프레이즈를 경험하기에 좋은 곡: 로저스(Rodgers)의 「에델바이스」, 헨델(Händel)의 「라르고」, 바흐(Bach)의 「미뉴에트」		
<수업의 전개>			
구분	시간	주요 학습 활동	활동의 목적
도입	20분	<b>♣ 움직임, 목소리, 악기연주를 통한 주제로의 도입</b> 1. 원형대열로 서서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 즉 멀리 뛰기, 공 던지기, 볼링 동작 등을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그 움직임을 아나크루식, 크루식, 메타크루식 박에 대입해서 적용해 본다. 2. 움직임을 목소리로 표현해 본다. 3. 다른 사람이 움직임을 하는 동안 그 동작을 다양한 악기로 연주해 본다. 4. 자신이 만들어낸 동작을 다양한 길이의 프레이즈로 표현해 본다. 예를 들어 공 던지기를 표현하는 경우 공의 도착지점을 멀리 혹은 가까이 설정하는 것에 따라 프레이즈의 길이가 다르게 표현되게 된다.	1.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움직임을 음악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박의 성질을 이해한다. 2. 움직임을 음악으로 표현하면서 프레이즈의 변화 뿐 아니라 강약, 아티큘레이션, 박자의 변화도 동시에 경험한다.

<p>전 개</p>	<p>50분</p>	<p><b>♣ 따라하기 게임에 기초한 유리드믹스 활동</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사가 프레이즈의 길이가 동일하게 진행되는 악곡을 즉흥연주로 들려주고 프레이즈가 바뀔 때마다 걷는 방향을 바꿔서 걷게 한다.</li> <li>2. 교사가 못갖춘마디로 시작하는 악곡을 즉흥연주로 들려주고 프레이즈가 바뀌면 마주치는 사람과 첫박에서 ‘손뼉 마주치기’(hi! five!)를 하면서 걷는 방향을 바꾸도록 한다.</li> <li>3. 교사가 즉흥연주로 갖춘마디로 구성되면서 프레이즈 길이가 불규칙한 음악을 들려주면 학생들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프레이즈가 바뀌면 밖으로 걸어 나오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프레이즈의 길이의 변화를 몸으로 표현해 본다.</li> <li>4. 교사가 프레이즈의 길이가 불규칙하면서 못 갖춘마디로 구성된 프레이즈로 구성된 음악을 들려주면 학생들은 스카프를 두 손으로 들고 걷다가 새로운 프레이즈가 나올 때 마주치는 사람과 마주 보고 스카프를 마주 보고 흔든다.</li> </ol> <p><b>♣ 빠르게 반응하기 게임에 기초한 유리드믹스 활동</b></p> <p>제자리에서 서서 교사의 즉흥연주를 듣고 있다가 교사가 “2”라고 구령을 외치면 2마디 프레이즈를 자유로운 동작으로 표현하고, “4”라고 외치면 4마디 프레이즈를 표현한다.</p> <p><b>♣ 대체하기 게임에 기초한 유리드믹스 활동</b></p> <p>원형대열에서 서서 공을 손에 쥐고 즉흥적으로 선율을 만들어 노래 부르면서 프레이즈를 패스한다. 이 때 짧은 프레이즈를 만들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에게 긴 프레이즈를 만들 때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걸어가면서 프레이즈를 넘겨준다.</p> <p><b>♣ 모방 게임에 기초한 유리드믹스 활동</b></p> <p>파트너와 그림자 놀이를 하면서 다양한 프레이즈를 창작해 본다. 이 때 움직임에 적합한 음악을 구음으로 표현하면 파트너는 움직임 뿐 아니라 목소리도 따라한다. 각 팀이 작품을 구성하면 발표하는 시간도 가져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실제 악곡을 통해 갖춘마디로 구성된 프레이즈와<sup>45)</sup> 못갖춘마디로 구성된 프레이즈의 특징을 이해한다.</li> <li>2. 다양한 길이의 프레이즈를 경험한다.</li> <li>3. 프레이즈를 구성하는 다양한 종지를 경험하면서 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li> <li>4. 프레이즈의 변화에 따른 시간-공간-에너지의 변화를 몸으로 경험한다.</li> <li>5. 다양한 프레이즈를 움직임과 선율로 창작하면서 즉흥연주를 경험한다.</li> </ol>
------------	------------	---	---

정 리	20분	<p><b>♣ 작품을 분석하여 코레오그래피 만들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사가 제시하는 악곡에서 나타나는 프레이즈의 구조, 아티큘레이션, 템포, 강약, 리듬, 형식 등의 음악적 특징을 분석한다. (이때 교사가 주입식으로 수업을 전개하지 말고 학생들이 몸으로 경험한 프레이즈의 특징들이 악곡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발견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유도해내는 것이 좋다.)</li> <li>2. 그룹을 나눠서 분석된 음악적 특징들을 근거로 코레오그래피를 구성하게 한다. 코레오그래피 작업의 경험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그룹을 나눠서 하는 것보다 교사가 주도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코레오그래피를 구성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이런 작업이 몇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면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작품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li> <li>3. 만들어진 코레오그래피를 발표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코레오그래피 작품을 만들면서 창의적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li> <li>2. 교사, 급우들의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이 정확하게 학습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경험하게 된다.</li> <li>3. 학생들은 코레오그래피 작업을 통해 프레이즈를 비롯한 다양한 음악적요소를 움직임으로 경험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식도 인지하게 된다.</li> </ol>
평 가 및 과 제	10분	<p><b>♣ 수업 정리</b>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에 대한 부연 설명 및 의미를 요약해 준다.</p> <p><b>♣ 과제 설명</b> 클래식, 가요, 동요, 재즈 등에서 다음의 사항에 적용되는 작품을 찾아오는 것을 과제로 내 준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프레이즈의 길이가 동일하게 진행되는 악곡</li> <li>2. 프레이즈의 길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악곡</li> <li>3. 아나크루식 프레이즈로 진행되는 악곡</li> <li>4. 크루식 프레이즈로 진행되는 악곡</li> </ol>	<p>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이 프레이즈의 형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음악적으로 프레이즈 해석할 수 있도록 해 준다.</p>

44) 제시된 곡들은 해당 주제에 접근하기 좋은 악곡들을 여러 장르에서 발췌하여 수록한 것이다. 학기 초에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실기 곡으로 연주

## ② 코레오그래피 작업 과정

9차시 이후에는 주제별로 유리드믹스 경험을 하는 외에 정해진 작품을 코레오그래피로 구성하는 작업이 별도로 진행되었다. 이 작업은 학생들이 음악을 분석하고 그 음악에서 나타나는 리듬, 선율, 아티큘레이션, 강약, 프레이즈, 박자, 조성, 형식의 변화를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왜 우리가 유리드믹스 수업을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유리드믹스 수업에서의 움직임은 순간적인 반응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코레오그래피 작품을 완성하여 발표하게 될 때의 움직임은 음악의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움직임으로 표현되는 높은 완성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코레오그래피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면서 음악과 움직임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고 자신의 몸을 더 음악적인 악기로 완성시키는 훈련을 하게 된다.

또한 한 개의 작품이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고 표현될 수 있는지를 학생들이 경험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작품을 정한 후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작품을 제시할 때 학생들이 그리 어렵지 않게 악곡을 분석할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단순한 악곡이라도 다양한 리듬의 변화, 아티큘레이션의 변화, 강약의 변화, 조성의 변화를 내포하면서 형식미를 갖춘 작품을 선곡하였다. 주어진 작품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다.

<표 4> 코레오그래피 작업 과정



하는 곡들을 조사해서 그 중 주제에 접근하기 좋은 작품이 있으면 수업에서 그 곡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 45) 달크로즈 수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못갓춘마디로 구성된 프레이즈를 아나크루식 프레이즈(anacrusic phrase), 갓춘마디로 구성된 프레이즈를 크루식 프레이즈(crusic phrase)라고 칭한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움직임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어색하고 쑥스러워 해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학생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유도해내기 위해 소도구를 사용하였다. 소도구를 사용하게 되니 학생들이 자신의 몸보다는 소도구에 시선을 집중하게 되어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끌어 낼 수 있게 되었다. 소도구로는 우산, 스카프, 부채, 공, 밴드, 리본 막대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소도구를 활용해서 자신의 움직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 후에는 소도구 없이 움직임만으로 코레오그래피를 만들어 보는 것도 시도하였다. 수업이 전개되면서 학생들은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집중하게 되었고 다른 그룹이 창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자극을 받아 수업 시간외에도 만나서 작업을 하는 열성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학기말 발표 시간에는 학생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훌륭한 작품을 완성해내어 많은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 (2) 즉흥연주 수업 사례

중간고사 이전까지 7차시에 걸쳐 오음 음계, 온음계, 반음계, 12음 기법, 선법을 이용한 즉흥연주의 기초를 연마한 후 9차시부터는 ‘음악동화 창작’과 ‘음계변주곡 창작’에 들어갔다. 중간고사 이전 각각의 음계를 활용한 즉흥연주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그 음계로 작곡된 다양한 음악적 예제들을 제공하였고 수업시간에 혼자서, 혹은 파트너와, 피아노 2대에서 4인이 동시에 즉흥연주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즉흥연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즉흥연주를 할 때 나머지 구성원들도 노래나 움직임으로 즉흥연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한편, 지난 2011년 2학기에는 학생들이 즉흥연주를 수업 시간에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실습을 하는 과제를 내주었다. 이에 가르치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도 학생을 교수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학생을 가르치지 않는 학생들은 부모님, 친구, 혹은 동생을 가르치면서 교수 경험을 쌓았다. 이렇게 교수 경험 쌓기를 필수 과제로 내 준 결과 그 이전 학기들에 비해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효과적으로 유발되었고 학습 성과도 매우 높아 학기말에는 좋은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다.



## ① 음악동화 창작 과정

음악동화 창작 작업은 다음과 같은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표 5> 음악동화 창작 과정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생들의 창의성과 음악성이 돋보이는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었는데, 그 가운데 피아노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문성원 학생<sup>47)</sup>의 『눈의 여행』중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야기에 적합한 음악 만들기로 작업을 끝냈는데, 이 학생의 경우 이야기에서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 그림으로 표현해 볼 것을 권유하였더니 한 편의 멋진 음악동화가 완성되었다. 지면 관계상 몇 개의 장면만을 소개

46) 이야기에 어울리는 그림 창작은 과제를 이행하는데 필수 사항은 아니었고, 그림으로 표현하기에 적절한 이야기를 창작해낸 소수의 학생만이 그림을 창작하였다.

47) 이 학생의 경우 지방 예고 출신이었는데 고등학교시절에도 시창, 청음, 음악이론 수업을 경험하였고 대학교에 와서도 1, 2학년 교과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이론 수업을 경험한 상태였다. 하지만 “일반 이론 클래스에서와는 달리 창의적인 생각을 끌어내는 수업 과정을 통해 알고 있었던 이론적 지식이 더 구체적으로 다가왔고, 작품을 만들다 보니 점점 흥미가 생겨 창작에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수업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문성원 학생 인터뷰, 2012년 5월 8일).

하면, ‘눈이 미끄럼틀로’(그림 1), ‘눈이 그네로’(그림 2), ‘눈이 시소로’(그림 3) 떨어지는 장면을 온음계를 사용하여 음악으로 표현하면 다음 <악보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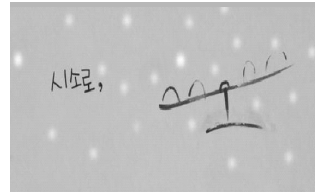
<그림 1> ‘눈이 미끄럼틀로’



<그림 2> ‘눈이 그네로’



<그림 3> ‘눈이 시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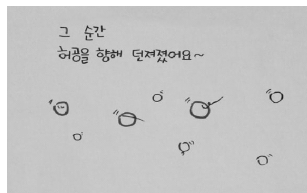


<악보 7> ‘눈이 미끄럼틀로, 그네로, 시소로’ 떨어지는 장면의 음악



꼬마들의 손에 의해 뭉쳐진 눈이 허공으로 던져지는 장면인 <그림 4>는 <악보 8>과 같이 반음계를 사용하여 표현되었다.

<그림 4> ‘허공으로 던져진 눈뭉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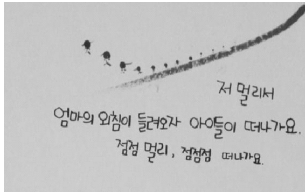


<악보 8> ‘허공으로 던져진 눈뭉치’ 장면의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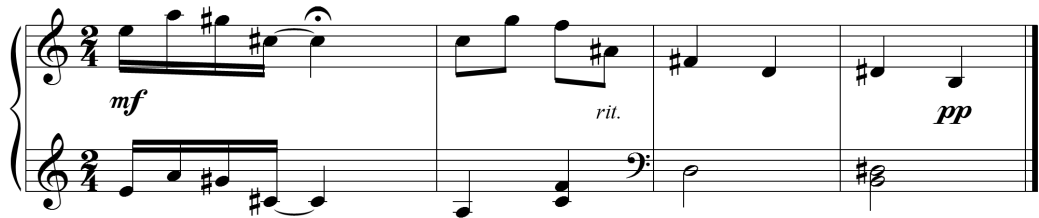


엄마의 외침이 들려오면서 아이들이 사라지는 장면인 아래 <그림 5>는 12음을 사용해서 긴장감 있는 음악으로 표현되었다(악보 9).

<그림 5> ‘엄마의 외침이 들려오자 떠나는 아이들’



<악보 9> ‘엄마의 외침이 들려오자 떠나는 아이들’ 장면의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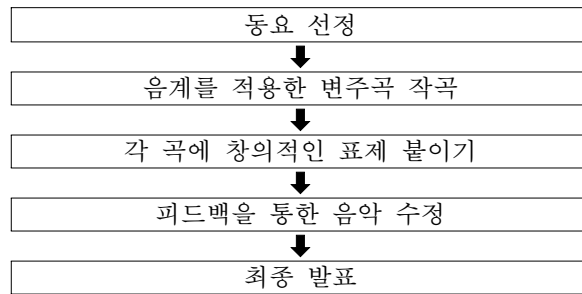


음악동화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이야기, 움직임, 음악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학생들이 많은 생각을 하도록 권고하였고 작품 발표 시간에는 구연 방법, 표정, 몸짓, 억양, 음악적인 피아노 연주 방법을 지도하여 학생들이 표현력 있는 연주를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도록 유도하였다.

## ② 음계변주곡 창작 과정

음악동화 창작 작업 완료 후 학생들은 동요를 이용한 음계변주곡을 창작하였는데 이 작업의 목적은 한 학기 동안 배운 음계를 복습하면서 학생들이 음계의 사용에 따라 음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다음의 과정을 거쳐 음계변주곡 창작은 이루어졌다.

## &lt;표 6&gt; 음계변주곡 창작 과정



학생들이 음계의 변화에 따라 음악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느끼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동요 선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지나치게 긴 동요 선곡은 피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도 과정에서 반주 형태, 음역, 리듬, 강약, 아티큘레이션, 템포의 사용에 대한 피드백을 주어 학생들이 피아노에서 만들어지는 소리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였다. 음악이 완성된 후 각각의 작품에 표제를 설정하도록 하였는데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이야기를 만든 후 음악을 만든 음악동화 작업과는 반대로 음악을 통해 이야기를 상상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자신만의 특별한 음악 해석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작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제목을 말하고 음악을 연주한 후 적절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그 다음 곡을 연주하도록 연습을 시키면서 학생들이 음악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훈련도 실시하였다.

다음에 소개될 작품은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피아노 전공 유라 학생<sup>48)</sup>의 작품이다. 으뜸 음계에 기초한 악곡에는 ‘행복함’(악보 10), 온음계에 기초한 악곡에는 ‘무서움’(악보 11), 반음계에 기초한 악곡에는 ‘바쁨’(악보 12), 에올리안 선법에 기초한 악곡에는 ‘어지러움’(악보 13), 다조성에 기초한 악곡에는 ‘궁금함’(악보 14)이란 표제를 붙였는데, 그 발상이 매우 창의적이고 음계의 사용에 따라 변화된 음악도 매우 흥미롭다.

48) 이 학생은 수도권에 소재한 예고 출신의 학생이었는데 수업 전·후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학기 초에 즉흥연주를 하려고 하니 무척 힘들었다. 청음 능력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수업 시간에 내가 상상하는 소리를 피아노에서 표현하지 못해 좌절감을 느끼곤 했다. 하지만 수업이 진행되면서 친구들이 연주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듣게 되었고 연습실에서는 그 소리를 모방하는 것을 계속 시도하다 보니 소리가 차츰 잘 들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음악동화를 만들고 음계 변주곡에 제목을 붙이는 과정에서 음악이 가지고 있는 움직임에 상상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연습에 입각곤 했었는데 요즈음에는 나도 모르게 특별한 장면을 상상하면서 연주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유라 학생 인터뷰, 2012년 5월 8일).

<악보 10> '행복함'

**Moderato**

The score is in 4/4 time with a key signature of three sharps (F#, C#, G#). The tempo is Moderato. The music features a melody in the right hand with triplet markings and a steady accompaniment in the left hand. The dynamic marking is *mf*.

<악보 11> '무서움'

**Adagio**

The score is in 4/4 time with a key signature of three sharps (F#, C#, G#). The tempo is Adagio. The right hand has a melodic line with a *16va* marking. The left hand features a series of chords with a *p* dynamic marking. There are *16va* and *8va* markings in the bass line.

<악보 12> '바람'

**Presto**

The score is in 4/4 time with a key signature of three sharps (F#, C#, G#). The tempo is Presto. The music is characterized by a fast, rhythmic melody in the right hand and a driving accompaniment in the left hand. The dynamic marking is *mf*.

<악보 13> '어지러움'

**Moderato**

The score is in 4/4 time with a key signature of three sharps (F#, C#, G#). The tempo is Moderato. The right hand has a melodic line with a *p* dynamic marking. The left hand features a steady accompaniment with a crescendo and decrescendo hairpin.

## &lt;악보 14&gt; ‘궁금함’

Andante

## 4. 수업 참가자들의 반응을 통해 살펴본 달크로즈 수업의 의미

학생들의 음악성 향상,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음악적 감수성, 음악 해석 능력, 음악 표현 능력, 음악 창작 능력 향상이라는 수업 목표의 성취 여부는 학생들이 한 학기를 마치고 작성한 강의 평가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항목별로 학생들의 주요 반응을<sup>49)</sup>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lt;표 7&gt; 수업 목표 성취에 관련된 학생들의 주요 반응

항목	학생들의 반응
음악적 감수성	“일방적이었던 고등학교시절의 학습 습관에 머물러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수업이었고 몸과 생각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수업이었다.” “귀로만 음악을 듣다가 다양한 음악게임과 음악동화, 코레오그래피를 경험하면서 소리와 움직임의 관계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음악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음악 해석 능력	“흥미롭게 음악을 들으며 움직이면서 음악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음악에 대한 재해석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즐거웠다.” “틀에 박힌 연습에 익숙해 있었는데 악보에 적힌 음표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음악 표현 능력	“슈만 소나타 2악장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가 큰 고민이었다. 하지만 달크로즈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 항상 느린 악장을 칠 때면 연주하면서 탄 생각을 하곤 하였었는데 실기시험을 보는 동안 너무나 음악에 몰입해서 연주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느려도 리듬을 잘 살리면 생동감 넘치는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되

49) 강의 평가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 어법이 맞지 않아도 학생들의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항목	학생들의 반응
	<p>는 것을 발견하면서 연주에 자신이 생겼다.”</p> <p>“연주할 때 음악적인 흐름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p> <p>“음악을 표현하는데 자신감이 생겼다.”</p> <p>“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움직임에 상상하게 되었고 움직임에 어울리는 소리를 어떻게 낼지 많이 고민하게 되었다. 그 과정을 겪은 후 연습실에서 내 곡을 연습할 때 ‘이 음악을 어떻게 연주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p>
음악 창작 능력	<p>“나는 즉흥연주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엇인가를 창작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p> <p>“이야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작곡이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p> <p>“작곡과인 나에게 즉흥연주가 쉽지만은 않았다. 머리를 쓰고 고민하는 작곡에 익숙해져 있어 즉흥적으로 곡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의 부족한 음악성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였다.”</p>
기타 의견	<p>“호기심에 수강신청을 했는데 움직이는 것이 쑥스럽고 생소했다.”</p> <p>“생각보다 내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아 아쉬웠다.”</p> <p>“창의성이 부족한 사람이 수업을 듣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학생을 가르칠 때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p> <p>“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신들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무척 좋았다.”</p> <p>“조별로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p> <p>“다른 과 학생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p> <p>“앞으로의 꿈과 목표설정에도 많이 도움이 되었다.”</p> <p>“음악을 즐겁고 재미있게 경험해서 좋았다.”</p>

‘음악’을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유리드믹스 수업 과정이 학생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 “‘음악적 감수성’, ‘음악 해석 능력’, ‘음악 표현 능력’, ‘음악 창작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의견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즉흥연주 수업을 진행하면서 피아노 연주 능력과 즉흥연주 능력이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특히 작곡 전공 학생들이 즉흥연주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의외의 결과였다. 다양한 곡을 많이 쳐 보고 작곡가들의 작품 속에 숨어 있는 아름다운 소리의 비밀을 깨닫는 학습 과정을 통해 작곡을 배우기보다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곡하는 방법에 치중해서 교육

을 받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은 아닐까 생각되었다. 또한 몸이 악기인 성악 전공 학생들이 다른 전공 학생들에 비해 보다 음악적인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타전공 학생들이 즉흥연주 과정에서 쉬지 않고 음을 만들어내는데 비해, 성악 전공 학생들은 화성감은 부족하지만 프레이즈를 느끼며 음악적인 선율을 창작하였다. 항상 호흡하면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 선율 창작도 자연스러운 호흡을 기초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겠다. 수업의 진행 과정에서 창의적 발상을 강조하다 보니 이런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학생의 경우에도 이러한 수업 경험이 학생을 지도할 때 도움이 되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음악 전공자들 특히 피아노 전공자들은 개인 연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다른 전공에 비해 사회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업의 많은 활동이 그룹으로 진행되다 보니 학생들은 음악 외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슬래빈(Robert Slavin)은 “협동적 방법은 학생 성취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학생 상호작용이 증가하며 소수 학생을 수용하려는 태도가 개선되어 교실 통합의 효과를 가져왔고, 자기존중감과 같은 정적 측면에도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sup>50)</sup>고 하였는데 처음에는 팀별 프로젝트를 부담스러워 하던 학생들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책임감,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협동심, 문제해결 능력이 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강의 평가서의 의견들은 그 다음 학기의 수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내용들을 반영하여 공간의 확보, 수강 인원의 조정이 이루어져 학생들이 보다 움직임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 또한 강의 내용을 가감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도 고심하게 되었다.

한편, 그룹 활동에 대해 학생들이 많은 흥미를 느낀 것, 달크로즈 교수법이 음악성 향상은 물론이고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 수업이 학생들의 장래를 계획하는데도 일조를 하였다는 것 등 음악성 향상이라는 목표 외의 결과를 얻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음악을 즐겁고 재미있게 경험해서 좋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기계적인 반복 연습에 치우쳐 있는 학생들이 새로운 경험을 유쾌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그 어떤 의견보다 소중하게 다가왔다.

50) 박현주, 『교육과정 개발의 모형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2005), 159쪽.



### Ⅲ.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음악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연구의 출발은 1999년 연구자가 달크로즈 교사 양성과정 수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착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달크로즈 교사 양성과정 개설 초기에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방법’을 교사들에게 전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곤 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사 개개인의 음악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학부 학생들의 음악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훌륭한 연주자 양성 뿐 아니라 자질 있는 음악 교사를 키워 미래의 음악 교육이 보다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석이 되는 작업이라 생각하고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인의 의지로 달크로즈 교사 양성과정에 등록된 교사들과는 달리 학부 교과 과정의 일환으로 수업을 선택한 학생들의 수업에 임하는 태도는 매우 달라 초창기에는 많이 당황했던 경험이 있다. 학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그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도 만들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소개된 두 학기에 걸친 커리큘럼은 학부학생들과 연구자가 소통하면서 달크로즈 교수법을 적용한 현재까지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달크로즈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음악에 어울리는 움직임 만들기 혹은 움직임에 어울리는 음악 만들기, 음악에 어울리는 이야기 만들기 혹은 이야기에 어울리는 음악 만들기, 음악에 어울리는 그림 그리기 혹은 그림에 어울리는 음악 만들기 등 다른 예술영역과 음악을 연계하는 작업을 경험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창작품을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음악적인 표현 및 해석에 대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음악성의 향상은 물론이고, 음악외의 다른 분야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도 더불어 갖추게 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의 변화를 수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검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에는 보다 전문적인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정확한 수치를 통해 그들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교육 효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H 대학교에 한정된 연구 결과이어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따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음악을 전공하는 어떤 연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보

다 다양한 교사들에 의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음악대학 뿐 아니라 예술계 중·고등학교의 기초 음악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모든 음악전공 학생들의 음악성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주 제 어** 달크로즈, 음악성, 유리드믹스, 코레오그래피, 즉흥연주, 음악동화

Dalcroze, musicality, eurhythmics, choreography, improvisation, musical fairytales

## 참고문헌

- 박현주. 『교육과정 개발의 모형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2005.
- 세광음악출판사 사진편찬위원회. 『음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0.
- 안재숙. “달크로즈 유리드믹스가 음악대학생의 음악적 이해력과 표현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유승지. “달크로즈 페스티벌 분석을 통한 어린이 공연 발전 모색.” 『음악과 문화』 20 (2009), 55-84쪽.
- \_\_\_\_\_. “초급 피아노 교재에 사용된 장·단조 체계 이외의 악곡 분석과 활용 방안.” 『음악과 문화』 23 (2010), 73-107쪽.
- \_\_\_\_\_. “카네기멜론대학의 달크로즈 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제언.” 『한국달크로즈논집』 1 (2010), 1-28쪽.
- \_\_\_\_\_. 문성원 학생 인터뷰. 2012년 5월 8일.
- \_\_\_\_\_. 유라 학생 인터뷰. 2012년 5월 8일.
- 최연선. “달크로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 레슨에서의 불규칙 박자 지도방안 연구.”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Abramson, Robert M. *Rhythm Games for Perception and Cognition*. Pittsburgh, PA: Volkwein Bros, 1973.
- \_\_\_\_\_. *Feel It!*. Miami, FL: Warner Bros. Publications, 1998.
- \_\_\_\_\_. & Joseph Reiser. *Dalcroze Hand Dances*. New York: Music and Movement Press, 2000.
- Alperson, Ruth. “A Qualitative Study of Dalcroze Eurhythmics Classes for Adults.” Ph.D. Diss., New York University, 1995.
- \_\_\_\_\_. “The Essence of Eurhythmics.” *Le Rythme* (2007), pp. 6-11.

- Bachmann, Marie-Laure. *Dalcroze Today: An Education through and into Music*.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Choksy, Lois, Abramson, Robert M., Gillespie, Avon E., Woods, David, & Frank York. *Teaching Music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6.
- Dale, Monica. *Eurhythmics for Young Children: Six Lessons for Fall*. Ellicott City, MD: MusiKinesis, 2000.
- F. I. E. R. *Paths to Rhythmics: 41 Lessons, 14 Teachers*. Genève: Editions Papillon, 2007.
- Institut Jaques-Dalcroze. *Emile Jaques-Dalcroze, Music in Movement*. Genève: Institut Jaques-Dalcroze, 2010.
- Jaques-Dalcroze, Emile. *Rhythm, Music, and Education* (1921). Trans. Harold F. Rubenstein. London: The Dalcroze Society, 1967.
- \_\_\_\_\_. *Eurhythmics, Art, and Education* (1930). Trans. Frederick Rothwell. New York: Arno Press, 1976.
- Keller, Johanna. "Let's Play the Music (and Dance)." *New York Times*, July 11, 2004.
- Pierce, Alexandra. *Deeping Musical Performance through Movement: The Theory and Practice of Embodied Interpretation*.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7.
- Root-Bernstein, Robert & Michele. "Arts at the Center."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발표자료집』.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0.
- Schnebly-Black, Julia & Stephen F. Moore. *Rhythm: One on One, Dalcroze Activities in the Private Music lesson*. Van Nuys, CA: Alfred Publishing, 2004.
- \_\_\_\_\_. *The Rhythm Inside: Connecting Body, Mind, and Spirit through Music*. Van Nuys, CA: Alfred Publishing, 2003.
- Spector, Irwin. *Rhythm & Life: The Work of Emile Jaques-Dalcroze*. New York: Pendragon Press, 1990. 문연경 외 역. 『삶과 리듬(상): 에밀 자크달크로즈가 걸어온 길』. 서울: 리더스하이, 2007.
- Steinitz, Toni. *Teaching Music in Rhythmics Lessons*. Tel-Aviv: OR-TAV Music Publications, 1988.
- Westney, William. *The Perfect Wrong Note: Learning to Trust Your Musical Self*. Pompton, N.J.: Amadeus Press, 2003.
- <http://www.riss.kr> (검색일: 2012년 5월 1일)
- <http://www.williamwestney.com> (검색일: 2012년 5월 2일)
- <http://www.dalcrozeusa.org/resources/resource-library> (검색일: 2012년 5월 3일)
- <http://markmorrisdancegroup.org/resources/history> (검색일: 2012년 5월 3일)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0286> (검색일: 2012년 5월 5일)
- [http://en.wikipedia.org/wiki/Laban\\_Movement\\_Analysis](http://en.wikipedia.org/wiki/Laban_Movement_Analysis) (검색일: 2012년 5월 6일)

## **Abstract**

### **Utilizing the Dalcroze Method to Improve Musicality of Music Majors**

Ryu, Seung-J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develop a lesson model to increase the musicality of music majors by utilizing the Dalcroze Method. This study was conducted over a period of six years, and the participants were 328 students who majored in music at H University. The study included the following: curriculum of the two semesters, samples of the lesson plan, and participant interviews.

In the first semester, the students learned the major concepts of music. These included factors such as beat, rhythm, dynamics, articulation, tempo, meter, and phrase—all of which were taught through eurhythmics activities. Then, as their final assignment, they theoretically analyzed a certain piece, and expressed its musical elements in movements, known as “choreography.” The second semester focused on improvisation. The lessons were designed in such a way that students of different piano skill levels could experience piano improvisation. Thus, the lessons covered improvisations using the pentatonic, whole tone, and chromatic scales and modes which are easier to approach in improvisation than the major and minor scales. The final project of the second semester were making “musical fairytales” and “scale variation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As they experienced music as “movement,” the students learned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music in general and enhanced their musicality. 2. The process of making “musical fairytales” and “scale variations” wa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is a story and movement fit for each piece of music. As a result, the students improved not only in improvisational skills, but also in imagination, creativity, and musical expression.

Although the lesson plan suggested in this study was conducted by college students on their fellow peers, it will be useful for teachers to help students of any age—from children to college students as well as other adults—to develop their musicality.